실독중 환자의 한자어와 고유어 소리내어 읽기 비교

배어정, 박은숙, 신지철, 김형희, 설록족 환자의 한자어와 고유어 소리내어 읽기 비교. 《언어교육학연구》, 2006, 제1권, 제1호, 95-121. 한자어의 음절별로 의미가 있어 문장에 실기 때문에 음절별로 세정되어 있으나, 고유어는 한자어 문장의 형태가 일치하므로, 삼중어휘에 저항되어 읽기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측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소리내어 읽기 과정을 식사하여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읽기 정확도 수와 오류양상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자어의 정확도 수가 고유어의 정확도 수보다 더 낮았으며, 고유어에서는 음절단계의 오류가 많았고, 한자어에서는 음절단계의 오류가 많았다. 이는 한자어의 작장 및 언문은 삼중단계로 이루어지고, 고유어의 경우 단어 전체로 이루어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말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휘유형인 한자어와 고유어가 실측어휘집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가능성에 지지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핵심어: 실측중, 실독중, 한자어, 고유어, 실측어휘집

I. 서 론

우리말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으며(전체어, 1980), 순수 우리말인 고유어는 전체 어휘 중 24.5%를 차지하고, 한자어 어휘는 69.22%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성희, 1993). 고유어와 한자어의 흐름은 주로 우리말의 특성으로서 실측중 환자가 고유어보다 한자어 쓰 기를 더 선호했다는 사례연구(Kim & Na, 2000)가 있다. 말하기와 들기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향상할 단계가 있는 것처럼 쓰기는 읽기와 명령된 단어 언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Ellis, 1993). 그러므로, 실측연구는 쓰기에 대한 연구가 아닌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쓰기에 나타난 오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자어는 외래어의 음절단계를 '자체단계'로 쓰는 것처럼 음절을 대치하는 오류를 보이며, 고유어는 귀무단계를 '귀무단계'로 쓰는 것처럼 음절단계를 비슷하게 쓰는 오류를 보였다. 실측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음절단계의 각각의 의미가 있어 문장화(segmentation)가 쉽게 이루어지게 오류단 위로 오류가 나타나고, 고유어는 문장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 전체가 실측어휘집에 저장되었으므로 유소단위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문장의 차이를 방향을 받은 근거를 고유어와 문장에서의 집단 차이를 비교한 이해
우·김성숙(2001)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어진 단어를 보고 집단을 분석하는 데 간이한 시간을 1/1000로 단위로 측정하는 실험은 하였을 때 우리말 회자는 고유어보다 한자어에서 절차나 절부사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다. 한자어 문장의 정구 분석하단 문장지는 고유어의 단어의 간격보다 짧았다. 이는 고유어가 없어 문장제가 상어가 아닌 경우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는 간결로 묵어지기 있다고 하며 문의 다만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어의
문장 안에 의미가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자어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어보다 분석하기 더 쉬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는 문장화가
업기 때문에 전체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하여야 하는 고유어보다 발리에서 오류를 적게 보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한자어가 문장으로 문장화가 필연되는 특성은 고유어보다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별세
생산력이
라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낭서적·묘마근(1993)에 의하면 "인(人)"이라는 글자와 사람
이라는 두형태로 문장을 가능할 수 있는 willingness로 '인(人)'·'인(人)' 단어와 같이 다른 형태의 틀
이나 인물에 빠른 이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박형섭(1997)에 의하면, 고유어 역시 다른 글자와 연관
하여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수나 결합률에는 있어서 한자어보다는 제한되어 있다.
주에서 살펴본 한자어와 고유어의 문장화의 차이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심리
어휘적(mental lexicon)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Aruchison(1994)에 의하면, 신경어휘
접급이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사전을 말하며, 여기에는 단어의 의미적, 동사적, 음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할 때 이를 참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소년아이 향없음을 묘사한 관찰 수의 차이와 오류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러한 가설
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저금까지의 연구는 평가에만 대상으로 하였고 어휘관련요소를 이용하여 높은 구
체성과 같은 이의 속성에 따른 반응조절과 오해경향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르기로 현지 교육과정으로 학급에 정계가 있는 실질적 현장에서 한자어와 고유어를 소년아이
힘을 때 성과 수의 차이와 오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자어와 고유어의 점점상의 차이에 대해 알
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가. 피험자 선정 기준

본 연구는 허락된 소년아이면서 화족 미취학연정의 손상으로 인한 서준환 예산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김영희·니덕현(2001)의 "지리라이스·한국판 웨스턴 일어중 전사(Paradise·K WAB)" 결과
실어중으로 진단 받았으며, 실어증 집단의 하위집단인 원기에서 실어증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원기의 발병 전에 능숙한 임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무작위

1. 실험자료

실험 참가자는 실어증환자 중 11명으로, 영규인원은 54세(±12.0)였고, 남자 7명, 여자 4명이었다. 힘력은 초등 2명, 중등 1명, 고등 3명, 미취학소 5명으로 평균 교육수준은 12.8년(±4.4)이었다. 병원 후

2. 실험 자료

가. 자극 단어 선정

이러한 증상의 발생에 있어 활성화된 단어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가지 있으므로 그동안의 연구결과의 적용이 없는 단어를 자극 단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따른 차이가

(1) 단어 검정


(2) 사용 빈도

조중달(2001)에 의한 단어를 둘 때 고민도의 단어가 저민도의 단어보다 쉽게 읽히라고 하였던

본 연구에서는 민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고민도와 저민도의 단어들은 한자어와 수준어에 동일

97
한 수도 평가하였다. 만든 흐로 조사하는 방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self rating)를 조사하는 방법과 상관적인 수치가 제공된 기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신분이나 교사적 응용 주로 한 문귀 자료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서 1998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를 설정하였다. 만든 100점 기준으로 하여 100 이상의 수치는 그림으로 단어 중에서 한자어와 고용어 각각 40개, 100 점이하의 수치는 단어 중에서 각각 40개를 선정하였다. 그림도 단어인 경우 자수 한자어의 평균 만두는 89.2,68이고, 자수 고용어의 평균 만두는 102.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수 단어이 경우 자수 한자어의 평균 만두는 65.16이고, 자수 고용어의 평균 만두는 67.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구체성


자수여는 단어 길이, 사용 빈도, 구체성을 고려하여 한자어와 고용어 기기 80개씩 구성하여 총 16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자수 한자어와 고용어의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3. 실험 절차

저수여는 15×10 cm 크기의 화판에 적은 색, 112 크기, 명주색 글로 사용한 테이프기기 없이 인쇄하였다. 테이프기기 정밀한 피복기에 제시하면서 ‘목표어를 정확하게 떠올리어 하세요. 주의시오’라고 요청하였다. 피험자에게 실시 단어를 적은 회고를 하거나 20초 이상 만능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의 무반응으로 표시하고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였다. 실험은 100개의 단어를 40개씩 세트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시 순서에 의해 영향을 볼 수되기 위하여 5명에게는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5명에게는 단어를 먼저 제시하는 순서로 실험을 하였다. 각 세트의 설계로 1회 시도는 20~30분의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다시 한편 전원으로 스타트 되어 달리라고 편백한 후에 다음 세트의 실험을 하였다. 피험자의 반응 을 Mini Disc(Sony MD T999)으로 실시간 녹음하였으며, 또한 연구자가 현장에서 오보음을 수배로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오류 유형은 외국의 선형연구(Ardila 1991; Payne 1985; Beeson 2001)를 참고하여, <표 - 1>에 제시한대로 우리말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였다. 먼저, 원서어와 고유어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음소 단계와 음절 단계로 나누었다. 음소단계의 오류는 다른 음소로 대치하여 의미가 달라진 단어나 비단어로 읽는 오류 및 음소의 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로 구분한다. 음소를 대치하는 단어로 읽는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음사한 단어로 바꾼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음절단계의 오류는 다른 음절로 대치하여 의미가 달라진 단어나 비단어로 읽는 오류 및 음절의 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를 말한다. 음절을 대치하여 단어로 읽는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음사한 단어로 바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전체 오류 중에서 1)대부분의 음소가 바뀌어 의미나 분할 성 연산성이 없는 단어로 읽을: 약간조 어(대부분의 음소가 바뀌어 비단어로 읽음); 3)이중분산성: 그리고 4)오류들은 기하적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 1> 오류 유형 및 예

<table>
<thead>
<tr>
<th>오류 유형</th>
<th>오류 예</th>
</tr>
</thead>
<tbody>
<tr>
<td>음소단계</td>
<td>의미적 연관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r>
<tr>
<td>오류</td>
<td>의미적 연관 단어로 읽음</td>
</tr>
<tr>
<td>비단어로 읽음</td>
<td>아단 &gt; 아단</td>
</tr>
<tr>
<td>음소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td>
<td>도포 &gt; 포도</td>
</tr>
<tr>
<td>음절단계</td>
<td>의미적 연관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r>
<tr>
<td>오류</td>
<td>의미적 연관 단어로 읽음</td>
</tr>
<tr>
<td>비단어로 읽음</td>
<td>음취 &gt; 음취</td>
</tr>
<tr>
<td>음절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td>
<td>방선 &gt; 방선</td>
</tr>
<tr>
<td>기타</td>
<td>인란성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r>
<tr>
<td>오류</td>
<td>신조어로 읽음</td>
</tr>
<tr>
<td>문법상</td>
<td>보존형성</td>
</tr>
</tbody>
</table>
5. 신뢰도 검증

평가시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자 2명의 신뢰도를 녹은한 자료를 신뢰하여 연어성기적 전문 대학원생 2명에게 제공한 후 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류 유형을 따라 숫자하도록 하고 유형에 따라 환자의 오류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전체에 따라 신뢰도는 94 %였고, 오류 유형 분류에 대한 신뢰도는 93 %였다.

III. 결과

1. 한자어와 고유어의 정반응 수 비교

한자어와 고유어의 정반응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자어의 평균 정반응 수는 전체 자수 수 80개 중에서 63.00개였고, 고유어의 평균 정반응 수는 전체 자수 수 80개 중에서 54.18개였다. 한자어의 정반응 수는 고유어의 정반응 수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 t(79) = 5.92, p < 0.01 \) (표 - 2)

<표 - 2> 한자어와 고유어의 평균 정반응 수 비교

<table>
<thead>
<tr>
<th></th>
<th>한자어</th>
<th>고유어</th>
</tr>
</thead>
<tbody>
<tr>
<td>정반응 수</td>
<td>63.00 ± 16.18</td>
<td>54.18 ± 17.96</td>
</tr>
</tbody>
</table>

값은 평균 ± 표준오차

\( p < 0.01 \)

2. 오류 분석

가. 음소와 음절 단계간의 평균 오류 수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음소와 음절 단계간의 오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 한자어는 유소 단계의 오류가 평균 4.27개, 음절 단계의 오류가 평균 7.0개로 서, 음절 단계의 오류가 음소 단계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고유어에서는 음소 단계의 오류가 평균 10.73개, 음절 단계의 오류가 평균 5.36개로서, 음소 단계의 오류가 음절 단계 오류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 t(30) = 2.447, p < 0.05 \) (표 - 2).
<표 - 3>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음소의 음절단계간의 평균 오류 수

<table>
<thead>
<tr>
<th>음소 단계</th>
<th>유일 단계</th>
</tr>
</thead>
<tbody>
<tr>
<td>한자어</td>
<td>4.27 ± 3.90</td>
</tr>
<tr>
<td>고유어*</td>
<td>10.73 ± 6.85</td>
</tr>
</tbody>
</table>

각 단의 평균 ± 표준편차

나. 오류 유형별 비율

전체 오류 중에서 오류 유형 각각에 따른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 4>.

가장 많은 오류 유형은 한자어에서는 단어 단계로 대체하여 비단어로 읽는 것으로 27.2%를 차지하였다. 반면 고유어에서는 단어 유수로 대체하여 비단어로 읽는 것으로 29.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오류 유형은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모두 신조어로 읽는 것으로 각각 20.3% 27.5%를 차지하였다.

<표 - 4> 오류 유형별 한자어와 고유어의 오류 비율

<table>
<thead>
<tr>
<th>오류 유형</th>
<th>한자어</th>
<th>고유어</th>
</tr>
</thead>
<tbody>
<tr>
<td>유소 단계 오류</td>
<td></td>
<td></td>
</tr>
<tr>
<td>의미적 연관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d>8.9</td>
<td>9.2</td>
</tr>
<tr>
<td>의미적 연관이 있는 단어로 읽음</td>
<td>0</td>
<td>1.0</td>
</tr>
<tr>
<td>비단어로 읽음</td>
<td>16.0</td>
<td>21.5</td>
</tr>
<tr>
<td>음소의 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td>
<td>0.5</td>
<td>1.8</td>
</tr>
<tr>
<td>소 계</td>
<td>24.5</td>
<td>41.5</td>
</tr>
<tr>
<td>유실 단계 오류</td>
<td></td>
<td></td>
</tr>
<tr>
<td>의미적 연관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d>11.2</td>
<td>9.5</td>
</tr>
<tr>
<td>의미적 연관이 있는 단어로 읽음</td>
<td>2.1</td>
<td>0.4</td>
</tr>
<tr>
<td>비단어로 읽음</td>
<td>25.2</td>
<td>8.8</td>
</tr>
<tr>
<td>음절의 순서를 바꾸어 읽는 오류</td>
<td>2.7</td>
<td>2.1</td>
</tr>
<tr>
<td>소 계</td>
<td>41.2</td>
<td>20.8</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연관성이 없는 단어로 읽음</td>
<td>8.0</td>
<td>5.9</td>
</tr>
<tr>
<td>신조어로 읽음</td>
<td>20.3</td>
<td>27.5</td>
</tr>
<tr>
<td>보수 현상</td>
<td>2.1</td>
<td>2.8</td>
</tr>
<tr>
<td>무반응</td>
<td>3.7</td>
<td>0.1</td>
</tr>
<tr>
<td>소 계</td>
<td>34.3</td>
<td>37.7</td>
</tr>
<tr>
<td>전체</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우리말 어휘생성의 한자어와 고유어가 상상어휘집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유추해보고자 본고 자세를 통해 인출과정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자어와 고유어간에 정반응 수와 오류 유형의 차이를 보인으로써 한자어와 고유어가 상상어휘집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보였다. 즉, 한자어의 단어 및 인출은 유전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대조적으로 고유어의 경우는 단어단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횃기자체들을 통해 오류 유형의 차이를 쓰기자체들을 통해 오류 유형의 차이를 보이며 전행연구결과(Kim & Na, 2000)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한자어에서 전철된 유전 단계 오류수는 유소 단계의 오류수보다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않았다. 그러나, 유전단계의 오류는 전체 오류 중에서 41.5%로 높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상상어휘집에서 각각의 유전을 인출하여 하나의 단어로 형성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고유단어의 일부 유전이 다른 유전을 대치하는 것이다. 유전을 대치하는 유전을 보일 때 유전단어와 연계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로 대치되는 경우가 임해되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이 ‘운동회’로 바뀌는 경우에 ‘-장’이 ‘회’로 대치되었으나 두 단어 모두 ‘운동’과 연관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각 유전 단계로 저장되더라도 상상 어휘집에 비슷한 유전 단계의 오류수는 유전단계에 따른 유전 단계의 오류는 유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나타난 유전 단계의 오류와 달리 고유어에서 전철된 유소 단계의 오류는 유전 단계의 오류보다 많았고, 전체 유전 중에서는 41.2%를 차지하였다. 고유어의 경우는 유전단계 노화드는 유소유전을 보이며 그 유소 간 교차 및 동화 등의 유전이 지배적이어 많은 유전단계의 단어가 단 단계로 저장된 후에, 그 단어를 인출하는 단계가 그러한 유전단계보다 유전단계가 될 수 있다.

지기 전에 어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재욱·남기춘(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약간 정확도 수가 높았는데, 고유어는 단어 전체가 한자
번에 인식되어야 하므로, 단어 단위로 인식되어 오류를 더 많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와 고유어의 정확도 수의 차이는 심신전이점에서 각각되는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상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고유어가 단어 전체로 인식되어서 정확하게 있도록 가정하려고 논의하였으나. 그러므로, 고유어에서 오류 단위의 인식이 맞이 보인 것은 고유어가 단어 전체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 단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단어 단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어가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측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한자가 내재적으로 하여 신현한 간파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추측연구에서는 한자가 보충하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야기 순상 정도와 발소 부위와의 관련성도
한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 문헌

서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이정익(2001). 체계적 한국어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동아
서울: 한국 정신 및 인지심리학회.
<table>
<thead>
<tr>
<th>대상자</th>
<th>성별</th>
<th>연령</th>
<th>고복</th>
<th>POT (mmHg)</th>
<th>피두께소유취</th>
<th>AQ</th>
<th>일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남</td>
<td>44</td>
<td>16</td>
<td>1</td>
<td>BG(^1) hemorrhage</td>
<td>70.6</td>
<td>82</td>
</tr>
<tr>
<td>2</td>
<td>여</td>
<td>40</td>
<td>12</td>
<td>2</td>
<td>MCA(^2) infarction</td>
<td>68.6</td>
<td>70</td>
</tr>
<tr>
<td>3</td>
<td>남</td>
<td>69</td>
<td>16</td>
<td>2</td>
<td>Thalamus hemorrhage</td>
<td>69.8</td>
<td>38</td>
</tr>
<tr>
<td>4</td>
<td>남</td>
<td>45</td>
<td>18</td>
<td>34</td>
<td>MCA infarction</td>
<td>71.4</td>
<td>81</td>
</tr>
<tr>
<td>5</td>
<td>남</td>
<td>50</td>
<td>12</td>
<td>24</td>
<td>Temporal parietal lobe hemorrhage</td>
<td>74.2</td>
<td>61</td>
</tr>
<tr>
<td>6</td>
<td>여</td>
<td>49</td>
<td>6</td>
<td>2</td>
<td>BG hemorrhage</td>
<td>44</td>
<td>36</td>
</tr>
<tr>
<td>7</td>
<td>남</td>
<td>61</td>
<td>18</td>
<td>5</td>
<td>MCA infarction</td>
<td>53.4</td>
<td>25</td>
</tr>
<tr>
<td>8</td>
<td>여</td>
<td>75</td>
<td>9</td>
<td>7</td>
<td>MCA &amp; ACA(^6) infarction</td>
<td>49.9</td>
<td>20</td>
</tr>
<tr>
<td>9</td>
<td>남</td>
<td>47</td>
<td>5</td>
<td>3</td>
<td>BG hemorrhage</td>
<td>43.4</td>
<td>20</td>
</tr>
<tr>
<td>10</td>
<td>여</td>
<td>68</td>
<td>12</td>
<td>1</td>
<td>MCA infarction</td>
<td>44.5</td>
<td>27</td>
</tr>
<tr>
<td>11</td>
<td>남</td>
<td>46</td>
<td>16</td>
<td>12</td>
<td>BG hemorrhage</td>
<td>44.9</td>
<td>22</td>
</tr>
</tbody>
</table>

\(^1\) post onset time
\(^2\) K WAB 검사의 일반적 100점 만점
\(^3\) K WAB 검사의 전반정 정수(Autopsy Question)로 간점 100점
\(^4\) Basal Ganglia
\(^5\) Middle Cerebral Artery
\(^6\) Anterior Cerebral Artery
### 부록 2: 자국 한자어의 고유어 목록

<table>
<thead>
<tr>
<th>번호</th>
<th>한자어</th>
<th>고유어</th>
<th>번호</th>
<th>한자어</th>
<th>고유어</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보자</td>
<td>기반</td>
<td>11</td>
<td>가로음</td>
<td></td>
</tr>
<tr>
<td>2</td>
<td>봉부</td>
<td>김척</td>
<td>12</td>
<td>명상고</td>
<td></td>
</tr>
<tr>
<td>3</td>
<td>수신</td>
<td>대저</td>
<td>13</td>
<td>도사관</td>
<td></td>
</tr>
<tr>
<td>4</td>
<td>사사</td>
<td>바꾸</td>
<td>14</td>
<td>반년설</td>
<td></td>
</tr>
<tr>
<td>5</td>
<td>양발</td>
<td>풍어</td>
<td>15</td>
<td>미형기</td>
<td></td>
</tr>
<tr>
<td>6</td>
<td>시계</td>
<td>이름</td>
<td>16</td>
<td>미료동</td>
<td></td>
</tr>
<tr>
<td>7</td>
<td>창대</td>
<td>지미</td>
<td>17</td>
<td>선봉기</td>
<td></td>
</tr>
<tr>
<td>8</td>
<td>외자</td>
<td>구두</td>
<td>18</td>
<td>우봉화</td>
<td></td>
</tr>
<tr>
<td>9</td>
<td>반지</td>
<td>기술</td>
<td>19</td>
<td>저하동</td>
<td></td>
</tr>
<tr>
<td>10</td>
<td>사과</td>
<td>번주</td>
<td>20</td>
<td>천화기</td>
<td></td>
</tr>
<tr>
<td>11</td>
<td>가로수</td>
<td>정학식</td>
<td>21</td>
<td>고통</td>
<td></td>
</tr>
<tr>
<td>12</td>
<td>명상고</td>
<td>개구리</td>
<td>22</td>
<td>고실</td>
<td></td>
</tr>
<tr>
<td>13</td>
<td>도사관</td>
<td>소나무</td>
<td>23</td>
<td>시삭</td>
<td></td>
</tr>
<tr>
<td>14</td>
<td>반년설</td>
<td>눈키물</td>
<td>24</td>
<td>양식</td>
<td></td>
</tr>
<tr>
<td>15</td>
<td>미형기</td>
<td>움مدر수</td>
<td>25</td>
<td>연습</td>
<td></td>
</tr>
<tr>
<td>16</td>
<td>미료동</td>
<td>찰장</td>
<td>26</td>
<td>취미</td>
<td></td>
</tr>
<tr>
<td>17</td>
<td>선봉기</td>
<td>물꼬기</td>
<td>27</td>
<td>품가</td>
<td></td>
</tr>
<tr>
<td>18</td>
<td>우봉화</td>
<td>오른손</td>
<td>28</td>
<td>단기</td>
<td></td>
</tr>
<tr>
<td>19</td>
<td>저하동</td>
<td>탕나비</td>
<td>29</td>
<td>공부</td>
<td></td>
</tr>
<tr>
<td>20</td>
<td>천화기</td>
<td>허리바</td>
<td>30</td>
<td>이단</td>
<td></td>
</tr>
<tr>
<td>21</td>
<td>고통</td>
<td>저량</td>
<td>31</td>
<td>경력</td>
<td></td>
</tr>
<tr>
<td>22</td>
<td>고실</td>
<td>곽적</td>
<td>32</td>
<td>기적</td>
<td></td>
</tr>
<tr>
<td>23</td>
<td>시삭</td>
<td>비긴</td>
<td>33</td>
<td>기적관</td>
<td></td>
</tr>
<tr>
<td>24</td>
<td>양식</td>
<td>영림</td>
<td>34</td>
<td>사항</td>
<td></td>
</tr>
<tr>
<td>25</td>
<td>연습</td>
<td>승석</td>
<td>35</td>
<td>상어리</td>
<td></td>
</tr>
<tr>
<td>26</td>
<td>취미</td>
<td>정난</td>
<td>36</td>
<td>신경질</td>
<td></td>
</tr>
<tr>
<td>27</td>
<td>품가</td>
<td>주위</td>
<td>37</td>
<td>선경절</td>
<td></td>
</tr>
<tr>
<td>28</td>
<td>단기</td>
<td>기울</td>
<td>38</td>
<td>생활비</td>
<td></td>
</tr>
<tr>
<td>29</td>
<td>공부</td>
<td>정계</td>
<td>39</td>
<td>호기심</td>
<td></td>
</tr>
<tr>
<td>30</td>
<td>이단</td>
<td>패왕</td>
<td>40</td>
<td>소식 thông</td>
<td></td>
</tr>
</tbody>
</table>

106
ABSTRACT

Reading Aloud of Chinese-derivative Words and Pure Korean Words in Aphasia with Dyslexia

Yeo Jung Baik
(Dept. of Neur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Eun Sook Park, Ji Cheol Shin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Hyanghee Kim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Korean vocabulary approximately consists of 24.5% of Chinese-derivative words and 80.32% of pure Korean words.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 mental lexicon of Chinese-derivative words is segregated from that of pure Korean words. In this study, when aphasics with dyslexia read aloud, their ability was better in Chinese-derivative words than in pure Korean words. Further, whereas there were more errors at the syllabic level in Chinese-derivative words, we observed more errors at the phonemic level in pure Korean words. The most common errors were nonword errors by replacing a syllable in the former and nonword errors by substituting a phoneme in the latt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orage and retrieval of Chinese-derivative words are processed in syllable units while those of pure Korean words are processed as whole words. Thus,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for the segregation of these two kinds of Korean vocabulary in the mental lexicon.

Key Words: aphasia, dyslexia, Chinese-derivative words, pure Korean words, mental lexicon